자본가와 지주는 로동자, 농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민 청 출 판 사
1962

EM00048822
MS
300

차 례

착취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들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거나 젖소나 염소에서 젖을 짜내며 벌통에서 꿀을 받는 것 등에 대해서 착취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또 그것은 착취가 아니다. 착취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쓰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착취 즉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라는 것은 공장, 광산, 토지 등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있는 착취 계급이 자기는 놀면서도 남이 만들어 낸 물건을 략탈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로동자들은 일제와 자본가들에게서 혹독하게 착취 당하였다.

로동자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먹고 살기 위하여 자본가의 무서운 채찍 밑에서 등이 휘도록 일하였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

다. 지주는 토지를 독차지하고 토지를 가지지 못했거나 극히 적게 가진 농민에게 땅을 빌려 주고 소작료를 받아 먹으며 착취하였다.

이러한 착취 관계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란 없였다. 착취는 계급이 발생하면서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노예 소유자 사회에서는 노예 소유자들이 토지, 가축, 대장간 등 생산 수단을 완전히 독차지하고 노예들이 만들어 낸 모든 물건을 빼앗았다. 노예는 소나 말과 같이 취급되였다. 봉건 사회에서는 봉건 령주들과 지주들이 토지를 독차지하고 농노-농민을 가혹하게 착취하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지주들이 공장, 광산, 토지 등 생산 수단을 독차지하고 로동자와 농민을 억압 착취한다.

그러면 로동자, 농민들은 왜 착취를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로동자, 농민들이 생산 수단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주택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물건들을 만들려면 토지, 공장 등 생산 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산 수단은 지주, 자본가들이 독차지하고 있음으로 로동자, 농민들은 부득불 착취 계급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광산, 토지에 고용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자본주의 사회를 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공장, 광산, 철도 등 생산 수단을 독차지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또한 상점, 은행, 체신 등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있다. 지주는 토지를 독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장, 광산, 철도, 토지 등을 자본가나 지주들이 혼자서 결코 다룰 수 없다.

어떻게 자본가가 혼자서 큰 공장에서 물

전을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지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많은 토지를 지주가 혼자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오직 공장과 토지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로동자, 농민 대중인 것이다.

이로부터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리윤을 얻게 되며 지주도 역시 농사를 지을만한 농민을 고용함으로써 리윤을 얻게 된다.

한편 로동자는 가진 것이란 오직 빈 두 주먹 밖에 없기 때문에 착취를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본가의 공장에 들어 가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게 되는 것이다.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농민들은 땅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있다고 해도 몇 평 밖에 없기 때문에 착취를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부득불 지주의 땅을 소작하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나 지주는 로동자나 농민을 고용하고 착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또 로동자와 농민은 자본가나 지주의 공장, 광산이나 토지에서 일해야만 몇 푼의 삯전이나 몇 말의 쌀이라도 얻는다.

결국 로동자와 농민들이 자본가나 지주에게서 착취를 당하게 되는 원인은 공장, 광산, 토지 등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와 지주들은 이러한 착취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권력까지 독차지한다. 자본가와 지주들은 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로동자와 농민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자기들의 사'적 소유를 보호하며 각종 반인민적인 법을 만들어 로동자, 농민들을 착취의 멍에에 얽어 맨다.

또한 자본가, 지주들은 착취의 사상적 수단으로 각종 반동적 사상, 종교, 미신 같은 것을 리용한다. 그리하여 이 자들은 로동자

와 농민, 근로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몽매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자기들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설교한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착취를 없애자면 이러한 착취 제도, 착취 계급을 뒤집어 엎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착취가 없는 사회이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인류 력사의 마지막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관계를 없애고 착취를 영원히 근절하였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자유롭고 행복한 새 사회를 창조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바로 이것은 우리 당의 령도 하에 공화국 북반부에 사회주의 제도-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청산, 동지적 협조와 호

상 원조에 기초한 가장 선진적인 사회 제도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자본가는 로동자를 어떻게 착취하는가?

자본가가 로동자를 어떻게 착취하는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이란 무엇이며 자본가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

자본이란 자본가가 리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에 투자하는 돈이나 여기에 리용하는 생산 수단을 말한다.

만일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밑천으로 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계나 원료 등을 사오며 로동자들을 고용할 때 여기에 사용하는 돈은 자본

으로 된다.

그런데 생산 수단이나 돈이 모두 자본인 것은 아니다. 돈이나 생산 수단이 자본으로 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여 있어야 하며 품팔이 하는 고용 로동자가 있어야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나 생산 수단은 그것이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 리용되지 않는다면 자본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생산 수단이 국가나 협동 조합의 소유로 되여 있고 품팔이 하는 고용 로동자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란 없다. 또 봉건 사회에서 농민들이나 개인 수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이나, 화폐도 자본으로 되지 않는다. 자본이라는 것은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가란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자본가라는 것은 돈과 공장, 광산, 철도,

체신 등과 같은 생산 수단을 독차지하고 로동자를 고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팔므로써 리윤을 내여 먹는 착취 계급이다.

이러한 자본가는 인류 사회가 발생한 첫 날부터 있은 것은 아니다. 자본가는 봉건 사회가 무너질 무렵에 생겨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따라서 생산 수단을 더욱 더 독차지하게 되였다.

자본가에는 산업 자본가와 상업 자본가, 은행 자본가 (대부 자본가)들이 있다.

산업 자본가란 공장, 광산 등 생산 수단을 독차지하고 로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냄으로써 로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산업 자본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해방 전에 서울 영등포에서 《경성 방직 공장》을 독차지하고 있은 김 성수나 흥남 비료 공장을 독차지하고 조선 로동자들의 피땀을 빨아 먹은 《노구찌》 등이 산업 자본가에 속한다.

상업 자본가란 산업 자본가들이 독차지한

공장에서 로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생산물을 사고 팔고 하는 장사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을 말한다.

상업 자본가들은 공장과 같은 것을 직접 독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 자본가들이 로동자를 고용하여 착취한 일부를 나누어 먹는다.

상업 자본가들이 산업 자본가들로부터 넘겨 받는 리윤도 역시 로동자를 착취하여 얻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자기가 고용한 로동자들도 착취해 먹으며 물건을 비싸게 팔므로써 일반 근로 대중을 착취한다.

오늘 남반부에는 일제 시대의 상업 자본가에 못지 않는 큰 상업 자본가들이 있다. 이 자들은 미제의 앞잡이로써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물건을 받아 팔아서 그들에게 돈을 벌어 주며 동시에 자기도 리익을 한 몫 얻어 먹으면서 인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하고 있다.

은행 자본가 (대부 자본가)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가지고 이것으로 리익을 보며 동시에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어 리자를 받아서 놀고 먹는 자본가를 말한다.

이들은 로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자본가들에게 돈을 꾸어 주어 로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도록 방조하고 그에서 나는 리자를 받아 먹는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한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은행 자본가들은 돈을 꾸어 주고 그 대신 리자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큰 공장들에 자기 돈을 넣어서 리득을 본다. 즉 제국주의 시대에 와서 은행 자본가는 산업 자본가와 하나로 합해지는데 이를 **금융 자본가**라고 한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금융 자본가들이 공장, 광산, 철도, 은행 등을 독차지하고 국가 권력까지 틀어 쥐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의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 근로자들을 혹독하게 착취한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창조한 모든 것을 자본가에게 강탈 당하며 아무런 생산 수단도 없기 때문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로동자들이 자본가에게 파는 로동력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를 파는 로동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 생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자본주의 사회는 그 이전 사회보다 훨씬 발전한 사회이다. 이 때에 와서는 기계도 더 발전하고 사람들의 일솜씨도 훨씬 발전한다. 그러므로 로동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물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낸다. 자본가들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로동자들이 파는 로동력을 사 가지고 리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에게 주는 품삯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시키므로서 로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열매를 따 먹는다.

례를 들어 설명해 보자. 해방 전에 조선 방직 로동자들의 품삯은 하루에 기껏 해야 50 전이 넘지 못 하였다. 어떤 방직공이 하루에 10 메터의 천을 짜고 50 전의 품삯을 받았다고 하자. 자본가는 10 메터의 천을 짜는데 필요한 솜을 사 오는데 1원 80 전, 기계 비용과 공장 건물 유지비에 40 전, 공장 관리비에 20 전, 물건 운반과 잡비에 10 전을 들였다. 그러면 이 자본가는 10 메터의 천을 짜는데 2 원 50 전이 든 셈이고 로동자에게 준 품삯 50 전을 합하면 3 원이 든 셈이다.

그런데 만약 천 1 메터의 값이 40 전이라면 10 메터의 값은 4 원이 될 것이다.

결국 자본가는 10 메터의 천을 짜는데 3 원을 들였지만 천을 팔아서 4 원을 얻게 되어 1 원의 리윤을 공'짜로 얻었다.

이 1 원은 어데서 생겨났는가? 이것은 자본가가 숨을 놓게 사다가 집을 짜서 비싸게 판 결과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로동자가 2원 50 전에 해당한 원료와 자재, 기계 등을 사용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루 동안에 4 원짜리 물건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 원 50 전은 응당 로동자가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는 로동자가 새로 불구어 놓은 1 원 50 전 중에서 로동자에게 품삯이라는 이름으로 50 전만 주고 1 원은 자기가 먹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가는 로동자를 착취함으로써 큰 집을 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하여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이를 위하여 이 자들은 로동 강도를 높여 로동자들을 혹사하는가 하면 로동 시간을 14 시간, 15 시간 또 그 이상으로 늘구는 것을 서슴치 않고 감행한다.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은 16~18 시간, 지어 20 시간의 노예 로동까지 강요 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가들은 로동자들의 로동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그만큼 더 큰 착취를 한다.

자본가들은 또한 녀성 로동자와 소년 로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착취를 더 많이 한다.

이 자들은 남성 로동자 대신 녀성 로동자를 많이 채용하고는 성별 차이를 두고 임금을 보다 적게 주므로서 리윤을 더 많이 짜는가 하면 소년 로동자를 많이 채용하고서는 어리다고 하여 몇 푼 안 되는 삯전을 주므로서 보다 많은 리윤을 착취해 먹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이다. 이 자들은 로동자들을 부려 먹는데만 혈안이 되여 로동자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신을 것도 제대로 내 주지 않으며 감독이며 경찰들을 시켜 매질과 위협으로 일시킨다. 그러다가도 병나서 일하지 못할 지경이

번 내 쫓거나 심지어 생매장까지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동 탄광 탄부였던 여 호필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그는 일제 시기 로동자들의 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오동지'달 설한풍 속에서도 홑잠방이를 입고 일했으며 신발조차 내 주지 않아 짚신을 삼아 신고 질쩍질쩍한 갱내에서 작업을 하였다. 쌀 배급이라야 호미좁쌀에 대두박을 섞어서 겨우 2 홉 3 작씩 내 주었고 더우기 기술을 배우거나 영화 구경 같은 것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게다가 로동자 열 명치고 십장이니, 감독이니 하는 온갖 불량배들이 평균 두 세 명씩 따라 다녔는데 심지어 헌병 놈까지 있어 제깍하면 로동자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또 청부업자나 광주들이 임금을 잘라 먹고 뜯어 먹다가 나중에 로동자가 병들어 일을 못 하게 되면 석탄 버력 속에 생매장하는 것이 헤아릴 수 없었다…》 이처럼 일제와 그 주구 예

속 자본가들은 살인 강도였으며 조선 로동자의 가장 악독한 착취자였다.

자본가들은 이처럼 악독한 착취자이기 때문에 로동자들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혹독하게 착취할만한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만 받았다.

조선 혁명 박물관에 가면 낡고 녹이 쓴 무게가 360 키로그람이나 되는 하나의 큰 쇠'덩이가 있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 인민을 착취하던 《신의주 왕자 제지 주식 회사》에서 조선인 로동자를 채용할 때 그들의 힘을 《검열》하던 쇠'덩이다. 이 제지 공장에 들어 가려는 사람들은 이 쇠'덩이를 메고 100 메터의 거리를 걸어야만 《통과》되였다. 그러나 이 모욕적인 《검열》에서 무사히 통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거의 전부가 허리와 다리를 상한다. 심지어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종신 병신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

이 외에도 자본가들은 위생 조건도 되여 있

지 않은 기숙사를 지어 놓고는 비싼 기숙사비를 받아 먹음으로써 로동자를 착취하는가 하면 또한 생트집을 잡아 벌금을 받는 방법으로 로동자들을 착취하며 별별 이름의 세금을 다 밤아 착취한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에서의 로동자들의 생활은 더 비참하다.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의 로동자들과 근로자들은 아무런 권리와 자유가 없는 노예와 같은 처지에서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또 그의 예속 자본가들로부터 2 중, 3 중의 무제한한 착취를 당한다.

일제 시대의 한 가지 실례만 들어 보자.

1928년 경에 일제의 대 자본가들이 《장진수력 전기 회사》공사를 진행할 때의 일이다. 이 공사 때에 이 자들은 아무런 로동 보호 조건과 안전 시설도 갖추지 않고 미리부터 많은 로동자들이 죽을 것을 예견하고 《사망 신고 양식》을 수만 장씩 찍어 놓고 착수하였던 것이다. 이 얼마나 악독한 원쑤들인가. 이것은

공사장이라기보다 죽음장인 것이다.

오늘 남조선 형편은 일제 시기보다 더 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예속 자본가들과 손을 맞잡고 로동자들에게 16~18 시간, 지어는 20 시간의 노예 로동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로동자들은 아무러한 위생 시설도 로동 보호 조건도 없기 때문에 3분의 1 이상이 폐결핵 또는 만성적인 질병 환자로 되고 있으며 그러한 일'자리마저 없어 600 여만의 실업자를 낳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가는 로동자들의 피를 빨아 먹는 흡혈귀이며 기생충이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이 자본가들의 착취에서 완전히 해방되자면 자본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인민 정권을 세워 그 자들의 생산 수단을 무상으로 몰수하여 전 인민적, 국가적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오늘 남반부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두목이고

침략의 괴수인 미 제국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 내고 예속 자본가,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을 타도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공화국 북반부와 같이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지주는 농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우리 나라에는 《지주가 한 놈 있으면 세 동네가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지주의 예속 하에서 혹독한 착취와 천대를 받던 우리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생활 속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면 지주란 어떤 자를 말하는가.

지주란 토지를 독차지하고 자기 자신은 농사'일을 하지 않고 농민들을 부려서 그들이 벌어 놓은 열매를 빼앗아 먹는 착취자들을

말한다.

지주는 자기 손으로 밭을 갈지도 않으며, 씨앗도 뿌리지 않으며, 김도 매지 않으며, 가을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주는 피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보다 몇십, 몇 배나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주들이 약 천년 전부터 있어 농민들을 억압 착취하여 왔는데 특히 일제 시기에 와서는 총 농호수의 3.3%에 불과한 지주들이 총 경지 면적의 60% 이상이나 되는 많은 땅을 독차지하고 농민들을 착취하였고 우리 조국 남반부에는 오늘까지도 지주들이 남아 있어 계속 농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고 있다.

그러면 지주들은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지주는 막대한 땅의 소작료를 받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한다.

우선 분익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말로는 지주의 땅을 농민이 소작한 다음에 그에

서 나오는 곡식을 지주가 50%, 소작한 농민이 50%를 차지한다는 것인데 실제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주는 50%씩 나누어 먹자고 해 놓고는 장리'쌀대요, 종자대요, 비료대요, 수세요 하면서 갖가지의 이름을 붙여 그에서 난 곡식의 거의 전부를 빼앗아 내는 것이다.

해방 전에 신천군 서원리에 있던 류 해현이라는 지주의 실례 한 가지만 들어보자. 이 자는 해마다 받아 들이는 소작료만 하여도 수백 석이나 되는 큰 지주였다.

제 땅이 없어 류 해현의 땅을 소작하던 김 선녀 농민은 1941년 가을에 서른 두 가마니의 벼를 거두었는데 소작료로서 열 여섯 가마니를 빼앗겼다. 그런데 김 선녀 농민은 이것만 빼앗긴 것이 아니다.

타작 마당을 지키고 서 있던 류 해현 지주 놈은 문서'장을 뒤지면서 김 선녀 농민의 집에서 변종 꿔 먹은 장리'벼를 받기 시작하였다.

좁쌀 일곱말 꿔 준 몫으로 열네 말, 수수 다섯 말 몫으로 아홉 말, 밀 여섯 말 값으로 열 두 말을 빼앗아 냈다.

이 외에 김 선녀 농민은 수세, 비료대 등으로 또 아홉 가마니의 벼를 내 놓게 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니 결국 김 선녀 농민에게는 몇 가마니의 쭉정이 벼가 겨우 남아 명년은 고사하고 당장 먹어야 할 량식도 없게 되였다. 지주는 이렇듯 농민들을 악착하게 착취한다.

다음으로는 정조제라는 것이 있다. 정조제라는 것은 지주가 농민들로부터 받을 곡식을 미리 정해 놓고 실지 수확과는 관계 없이 사전에 일정한 량의 소작료를 물게 하는 것이다.

이 정조제에 의해서 지주는 수확과는 관계 없이 이미 정해 놓은 량을 언제나 받아 먹는다. 이 경우에 지주는 가장 풍작을 이루던 해의 수확고를 기준으로 하여 소작료를 높이 정해 놓고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덜

편 없어도 감해 주지 않는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집조제라는 것이 있다. 집조제라는 것은 수확하기 직전에 평뜨기를 하여 수확량이 얼마쯤 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소작료를 받아 내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지주들은 평뜨기를 가장 잘 된 곳을 찾아 다니면서 해 놓고 예상 수확량을 실제 수확량보다 훨씬 높여 놓음으로써 이에 기초하여 소작료를 받아 먹는 것이다.

지주 놈들은 이렇게 별별 방법의 소작료로 쌀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로력을 직접 앗아 내기도 한다.

농민들의 로력을 앗아 내는 것도 쌀을 빼앗는 것보다 못지 않게 혹독하다. 여기에는 보통 《머슴답》, 《행랑답》, 《위토》, 《보리'논》 등이 있다.

《머슴답》, 《행랑답》이란 지주들이 머슴살이를 하는 빈농, 고용농들을 부려 먹고 그 보수로 약간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착취하는 것이다.

《위토》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제답》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주들이 농민들을 자기 집 묘지 관리에 부려 먹고 그의 대'가로 약간의 토지를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보리'논》이란 지주가 농민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 대'가로 논에 봄'보리를 경작케 하고 착취해 먹는 것을 말한다.

농민들은 지주에게 이렇게 소작료에 의한 착취와 로력의 착취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리대에 의한 착취도 혹독히 당한다.

고리대적 착취란 지주가 농민들이 당장 끼니를 이어 나가지 못하는 형편을 알아 채서 그들에게 곡식 또는 돈을 꾸어 주어 높은 비자를 붙여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꾸어 쓴 농민들이 얼마나 착취 당하는가를 보자. 경상북도 금릉군 구성면 상원리에 사는 리 춘영이라는 농민이 1958년 2월에 지주 공 모라는 자한테서 1만 5천 환이라는 돈을 꾸어 썼었다. 그 후 리 춘영 농민은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일하며 자기는

끼니를 띤지면서까지 돈이 생기는 차례로 한 푼, 두 푼 꼰꼰이 물어 왔지만 그 리자가 붙고 또 붙어 3년 후인 작년에 와서는 11만 632 환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이 농민은 결국 꾸어 쓴 돈을 물지 못 하게 되어 마지막에는 자기 딸자식까지 지주에게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원통한 일까지 있었던 것이다.

남조선에서는 농민들이 고리대 때문에 딸자식을 파는 현상이 보통 현상이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사는 한 농민도 역시 지주에게 돈을 꾸어 쓴 것이 변에 변이 붙어 28만 환이나 되였다. 그러자 지주는 그 농민이 돈이나 쌀로 당장 물어 낼 수 없는 처지를 뻔히 알면서도 당장 벼 열 섬을 내라고 강요하였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딸자식을 내 놓으라고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그 농민은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 박 옥임을 빼앗기게 되였는데 그 지주 놈은 당년 19 세 밖에 안 되는 이 처녀를 65 세 늙다리 자본가에게 첩으

로 팔아 먹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일제 때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 보자.

일제 때 황해도 안악군에 살던 서 명리 로인은 일찌기 부모를 여이고 고모네 집에서 살았는데 생활이 구차하여 장가 갈 나이에 장가를 못 들고 있었다. 그 후 이웃 사람들의 주선에 의해서 약혼하게 되였는데 집에 있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었다. 정말이지 선보러 오는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가사였다. 드디여 선보러 오는 날이 다가 왔다. 바로 그 전 날 밤이였다. 로인은 고모가 시키는 대로 헛간 방아'간에 가서 조'겨를 가마니에 몇 가마니 퍼 담아 웃방에 들이다 쌓 놓았다. 알고 보니 이것은 선보러 오는 사람에게 곡식 가마니라도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인가! 이렇게 되여 약혼은 이럭저럭 합의되였다. 그런데 선채금 문제였다.(그 때는 장가들 때 색시집에 선채금이

라는 것을 내었다.) 로인은 장가 든 후에 벌어서 물기로 하고 지주 홍 장로에게서 돈 5천량을 빗 내였다. 장가를 든 후 로인은 지주 김 시현의 땅 4,000 평을 얻어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선패금으로 쓴 돈을 물자는 것이였다.

그런데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마당질 하는 날이였다. 지주 김 시현이라는 자가 달구지 군을 앞세우고 오더니 통털어 12 가마니 난 중에 9 가마니를 빼앗아 갔다. 이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였다. 그러나 로인은 소작 땅을 떼울가바 말도 못 하고 땅'바닥에 털석 주저앉아 하늘만 무심히 바라 보며 한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주 홍 장로가 나타나 돈이 아니면 쌀이라도 내라는 것이였다. 그렇지만 빚을 갚을 방도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로인은 홍 장로의 요구에 의해 그 해 겨울부터 선패금 5천량에 목이 골려 생존에 해 보지 못한 석공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삼동설한에 흘중의 적삼으로 골려 다닌

지도 벌써 몇 해가 지나 갔다. 이제는 손'바닥에 명에가 지다 못 해 터실터실 개절이 일었고 손'가락은 죽죽 갈라져 마디마디 피가 흘렀다. 그러나 홍 장로의 빚은 자꾸만 늘어 갔다. 그 놈의 리자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있었다. 선패금 5천량! 이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결국 로인의 반생은 억울하게 지주의 고용살이를 하게 되였고 조국이 해방되여 지주가 멸망한 다음에야 빚도 없어졌던 것이다.

이상에서 모다싶이 지주는 자본가와 같이 농민들과 근로자들의 가장 악독한 착취자이며 인민들의 피땀을 빨아 먹고 사는 흡혈귀이며 기생충이다.

그리하여 오늘 남반부에는 이러한 지주 놈들 때문에 끼니를 굶는 사람이 340만 명이나 되며 절량 농민이 천만 명이나 된다.

이 세상에 지주 제도가 있는한 농민들은 잘 살 수 없으며 오직 자본가, 지주 제도인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 공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오늘의 북반부를 보라! 온 천지 어디에서든지 굶어 죽는 사람이거나 머슴살이 하는 사람을 찾아 볼 수 없다. 돈 때문에 딸자식을 팔지 않으면 안 되거나 고리대 때문에 일생을 망치는 일은 옛'이야기로 되였다.

로동자, 협동 농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공장과 땅의 주인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착취와 빈궁의 근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졌다.

조국의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 있는 하많은 이야기 중 한 가지만 들어 보자.

창성이라면 조선에서 이름난 산간 벽지로서 경지 면적이란 군의 총 면적의 5% 밖에 안 되는, 그것도 돌무지가 아니면 산비탈에 놓여 있는 험한 경사지로서 일제 시대는 이 곳을 사람 못 살 곳이라고 불리워 왔다. 그러나 지금 이 곳 사람들은 별반 사람 부럽지 않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해에 유걸리에 사는 김 원걸 협동 농

장원은 분배에서 6 톤 315 키로의 알곡과 2천 203 원의 현금을 받고 자체 부업으로 150 원의 수입을 얻었다. 그리하여 재봉기, 라지오, 시계 등을 새로 구입했고 여러 자리의 침구와 옷을 새로 마련했고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고쳐 짓고도 400 원 돈이 남아 지금했다.

이런 행복은 비단 김 원걸 협동 농장원의 가정만 있는 행복이 아니다. 해방 전 지주, 자본가가 있는 일제 때에는 옥수수 죽도 없어 초근 목피로 끼니를 이어 오던 창성 사람들은 물론 공화국의 모든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이다.

실로 우리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하에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 누구나 다 같이 마음껏 일하며 배우며 희망차게 사는 우리 인민은 얼마나 행복한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고 실업과 기아의 위협을 모르며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다 같이 배우며 다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북반부의 현실이며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의 우리 인민의 생활이다.»

× × ×

이상에서 우리는 착취란 무엇이며 자본가와 지주들은 로동자, 농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를 보았다. 실로 자본가, 지주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원쑤이다.

착취가 없는 사회, 자본가와 지주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무한히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1930 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백두의 밀림에서 15 여 성상에 걸친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피로써 이룩한 혁명적 전취물인 것이다. 투쟁

이 없이는, 자본가, 지주를 때려 부시는 혁명이 없이는 행복이 오지 않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공화국 북반부에서 착취를 근절시킨 것처럼 공화국 남반부에서도 착취를 없애기 위하여 그의 장본인인 미제를 내몰고 자본가, 지주 제도를 때려 부시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피로써 쟁취한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며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날에 날마다 우리의 생활은 유족해지고 있다. 원쑤들은 바로 이것을 패아파하며 파괴하려고 한다. 또한 청산당한 자본가, 지주 계급 중 아직 개조되지 않은 악질분자들은 옛제도를 회복해서 또 다시 로동자, 농민을 착취, 억압하려는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자본가, 지주는 죽기 전에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계급적 원쑤들을 더욱 철저히 증오하며 항상 로동 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며 제때에 적발 처단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믿음직하게 사수하는 우리 당의 붉은 전사로 준비되여야 한다.

자본가와 지주는 로동자, 농민을 어떻게
착취하는가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1962년 10월 20일 인쇄
1962년 10월 25일 발행

ㄱ—230633 (값 6 전)